

강유위의 대동사상

: 『대동서』를 중심으로

김지연*

目 次

- I. 머리말
- II. 대동사상의 형성과정
- III. '대동' 개념: 전통의 '대동'과 강유위의 '대동'
- IV. 『大同書』에 나타나는 강유위의 이상사회
- V. 맺음말

I. 머리말

동양의 근대화의 경험은 서세동점이라는 커다란 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 서양의 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 양상은 대체로 중화사상의 우월감을 지닌 채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서구문물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중국 사상가, 지식인들의 사상의 변화는 결국 연속성과 비연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통이라는 사상적 배경은 연속성으로, 서양문명의 수용은 전통과 단절이라는 의미에서 비연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이 시기의 대표적 유교지식인 강유위는 서구의 열강의 침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변법운동이라는 개혁운동의 중심인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공자를 유교의 創教자로 주장하면서 유교를 종교로 재조직한 인물로 유교개혁운동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孔敎'라는 '종교'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유교의 종교성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강유위의 공교운동은 그의 사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종교로 이끌어낸 孔敎를 연구하기에 앞서 먼저 고찰되어야 할 주제이다. 그리고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중화사상의 전통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도 연속과 비연속성을 넘어서 서구의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유교 전통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형성과정에서 근대 이전시기와 근대시기로 들어서는 중간단계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통시적인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시적으로 中西문화의 충돌에서 오는 문화접변적인 현상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강유위의 학문형성 과정, 시대적 성격과 함께 살펴보고 전통적인 '대동' 개념과 대비되는 강유위의 '대동' 개념을 그의 대표적인 저서 『大同書』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대동사상의 형성과정

강유위의 대동사상의 형성은 시기별로 나누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다한 주제와 다양한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대동사상의 특징은, 강유위가 살았던 시기의 시대적 성격과 함께 그 시기의 복잡다단한 사상사적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동사상의 형성과정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기별로 사상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강유위는 1858년 중국의 남부 광동성의 광주부에 속한 남해현의 은

당항이라는 곳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¹⁾ 1858년은 중국 내부적으로 태평천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던 해이고 대외적으로 2차 아편전쟁에 실패한 중국이 서구 열강과 天津條約을 체결한 시기이다. 광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나 아랍세계와의 무역항이기도 했으며 근대 서양의 경제적 침투의 첫 항구였으며 근대 서양의 군사력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은 곳으로서 서양의 침입으로 야기되는 충격에 민감한 곳이었다. 청 제국의 통치 질서에 반기를 들고일어난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이 광주 근처 사람이었으며 홍수전의 반란의 사상적 지주였던 상제교의 원리에 원용된 기독교리를 접한 곳도 광주에서 체류했던 서양선교사로부터였다. 광주는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과도 바로 이웃해 있어 서양문물의 전시장이기도 했다. 광주는 서양 힘의 압력과 서양문화의 흡인력을 함께 받은 곳이다. 여기서 태어난 강유위는 내우외환의 혼란 시기에 일생을 보내게 된다.²⁾

강유위의 사상형성 시기는 1894년을 전후로 사상형성 시기와 정치활동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유년으로부터 34세까지에 해당하는 전반기는 기초적 학습기간이자 사상적인 토대가 구성된 시기이며, 후반기에 이르러 강유위는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진입한다.³⁾

증조부인 康健昌은 향리에서 강학을 했으며, 조부 贊修는 道光의 舉人으로서 朱子學에 조예가 깊었고, 부친 達初는 朱次琦의 가르침을 받고 康國器와 함께 태평천국의 난에 從軍하였으며, 전후 江西省의 補用知縣이 되었으나,⁴⁾ 강유위가 11세 되던 해에 병약하여 세상을 떠났다. 부친

1) 康有爲, 『康南海自編年譜』, 『續修四庫全書』, 편찬위원회 편, 상해고적출판사, p. 153. 이 책은 1898년까지의 자기 생애를 정리한 일종의 자서전으로, 이후로 『자편연보』라 칭하겠다.

2) 민두기, 「역사 속의 강유위」, 『사회비평』 2호, 1989. p. 316.

3) 최성철 교수는 강유위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6단계로 구분한다. 사상형성 과정으로서 출생에서 18세에 이르는 幼少年期(1858-1875), 19세에서 30세에 이르는 青年期(1876-1887), 31세에서 37세에 이르는 講學時期(1888-1894)의 3단계와, 정치활동으로서 變法維新運動期(1895-1898), 保皇立憲運動期(1899-1911), 復辟運動期(1912-1927)의 3단계가 그것이다. (최성철, 『강유위의 정치사상』, 일지사, 1988. pp. 28-65.)

4) 강유위, 『자편연보』 同治 7年條, p. 156.

이 사망하자 그는 조부의 지도아래 정주의 학문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된다. 조부의 가르침은 그가 청년기에 이르기 직전인 18세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에 주로 주력한 학문은 경학과 사학에 관한 것이었다. 17세 때에는 처음으로 『瀛環志略』, 『地球圖』 등을 읽고 점차 세계의 大勢를 인식하기도 하고, 古文을 모방하기도 하며, 群書を 섭렵한다.⁵⁾

청년기의 강유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은 南海縣의 碩學이자 조부의 친구인 朱次琦(朱九江)였다. 강유위는 朱九江을 “송의 司馬光이나 呂祖謙, 청의 顧炎武나 王夫之에 필적하고 德器는 그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朱九江은 공자를 宗으로 하고 氣節과 濟世救人을 중시하는 경세치용의 학문을 주장한 신유학자였다. 朱九江의 가르침을 받은 강유위는 이러한 講學의 태도에 특별한 영향을 받아 禮樂을 중수하고 先聖의 大道, 즉 濟世救人을 실현하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⁶⁾

그러나 光緒 4년(1878) 21세에 강유위는 朱九江의 門下를 떠나 다음 해부터 西樵山의 白雲洞에 칩거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靜坐修業을 행하고, 道敎 및 불교의 서적을 탐독하였다. 22세 되던 겨울 그는 홍콩을 방문해서 건축의 莊麗, 도로의 청결, 경찰의 엄중함에 놀라서 서양에도 治國의 법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그는 『海國圖志』 등의 책을 애독하고 地球圖를 구해서 西洋事情에 노력했다.⁷⁾ 1880년 23세 때에는 公羊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⁸⁾ 1882년 25세 때에는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楊州, 鎮江, 上海 지역에 들러 金石學의 연구자료와 洋書를 수집했다.⁹⁾ 26세 때는 외국인 선교사가 내고 있던 간행물 『萬國公報』를 구독했으며, 남경의 강남제조국에서 번역한 서양의 자연과학 책을 탐독하였다.¹⁰⁾ 이같은 광범한 독서가 이후

5) 강유위, 『자편연보』 同治 13年條, p. 159. 於時好爲縱橫之文, 時時作詩, 與兄弟鄉先輩倡和, 又好摹倣古文, 然涉獵群書爲多, 始見瀛環志略, 地球圖, 知萬國之故, 地球之理.

6) 강유위, 『자편연보』 光緒 2年條, pp. 159-160.

7) 강유위, 『자편연보』 光緒 5年條, p. 163.

8) 강유위, 『자편연보』 光緒 6年條, p. 164. 是歲治經及公羊學, 著何氏糾繆, 專功何勛公者, 既而悟其非, 焚去.

9) 강유위, 『자편연보』 光緒 8年條, p. 165.

그의 사상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1884년은 강유위 사상 형성과정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해는 중국과 프랑스의 전쟁(청불전쟁)이 일어났던 때인데 중국이 서양열강과 무력으로 싸운 것은 강유위가 태어나기 전의 아편전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동서』 저자 서문에서 강유위는 “청불전쟁 때 국난에 느낀 바가 있었고 백성의 괴로움을 생각하여 『대동서』를 지었다”¹¹⁾고 한다. 전쟁이 『대동서』에 담겨진 사상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데 큰 자극이 됐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불안한 정황에 강유위는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사색에 정진한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대동사상의 근원인 통합의 원리가 나타난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合國) 세계 여러 인종을 하나로 만들고(合種) 세계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여(合教) 지구를 하나로 하는 원리인데, 이 원리는 중국의 전통사상과 서양의 새 이론, 유교와 불교의 종교사상을 절충하여 생각해낸 것이다. 여기서 서양의 새 이론은 大悟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연과학의 원리이다. 강유위는 “현미경을 통해 개미가 코끼리만큼, 이가 수레바퀴 만큼이나 보이는 것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이 사실한 가지이고, 전기광선이 일초에 수만리를 가는 것을 알아 빠르고 더듬이 같은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강유위의 大悟는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여 과거, 미래, 현재를 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無를 부정하여 生有를 존중하고 示現, 悟覺에 의거하거나 仁慈를 施用하여, 元을 體로하고 陰陽을 用으로 하는 道를 깨달은 것이다.¹²⁾ 그리고 이러한 학문을 기반으로 1885년부터 1887년에 걸쳐 『人類公理』, 『康子內外篇』, 『公理書』, 『教學道義』 등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 이후 강유위의 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강유위는 1890년 광주에서 廖平을 만나 그의 영향으로 고문학으로부터 금문학으로 학문의

10) 강유위, 『자편연보』 光緒 9年條, pp. 165-166.

11) 강유위, 『대동서』 저자 서문, p. 8. 본문에 참조한 대동서는 中國學術叢書, 第3編 7, 哲學宗教類 판본이다. 한국어판으로는 이성애가 번역한 『대동서』(민음사, 1991)가 있다.

12) 강유위, 『자편연보』 光緒 10年條, pp. 166-167.

방향을 바꾼다.¹³⁾ 그는 “新學의 진의성과 고문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유학경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1891년(광서 17년) 강유위는 진천추, 양계초의 협력 아래 『新學僞經考』를 완성하였고 1897년 이를 더욱 발전시켜 『孔子改制考』를 저술하였다. 『신학위경고』는 중국학술의 근원이 되는 고전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고전 텍스트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종래 돌아보는 이가 드물었던 다른 종류의 경전이 진정한 공자의 사상을 담은 것이라는, 학계에 혁명적인 주장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유위 자신이 공자의 참 역사사상을 전달·해석했다고 믿는 『춘추공양전』의 진위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강유위는 『孔子改制考』에서, “공자는 자기 스스로의 사상을 정립했다기 보다는 공자 이전의 성인의 사상을 전달(術而不作)했을 뿐”이라는 전통적 공자상은 그릇된 것이며 공자야말로 미래의 민주의 세상을 내다보고 공자 이전의 성인의 이름에 가탁하여 공자 스스로 제도·사상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강유위의 제자인 양계초는, 『공자개제고』에서 강유위의 목적은 공자가 미래의 질서를 창시한 사람임을 논증하여 공자에게 서양문화의 근원인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공자가 미래의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강유위가 새로 권위를 부여한 『춘추공양전』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 미래라는 것은 두 단계의 진보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대동세계이다.

『대동서』의 구상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884년 강유위가 27세 되던 해이며, 이 시기의 사상을 기초로 삼아 18년 후인 광서 28년에 책이 완성되었다. 대동사상의 구상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이를 비밀로 하여 남에게 밝히지 않았고, 다만 萬木草堂 시에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피력하였다고 한다. 『대동서』는 완성 후 10년이 지난 민국 3년에 일부를 《不忍》이라는 잡지에 발표하였다가 중단되었고 10부 전체를 간행한 것은 민국 8년의 일이었다.

13) 최성철, 앞의 책, p. 41. 『자편연보』에는 廖平과의 의견교환이나 廖平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아무런 기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점은 이 시기의 주요저작인 『신학위경고』와 『공자개제고』의 창의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Ⅲ. ‘대동’ 개념: 전통의 ‘대동’과 강유위의 ‘대동’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유가사상을 근간으로 도가, 묵가, 불교 및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사상이다. 원래 대동사상은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전래되어온 보편적 사상이며 공통 목표였다.¹⁴⁾ 이 사상의 원류는 극히 오래된 것으로 堯舜 황제의 시대로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된 그들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동은 차별을 두지 않고 동화하여 天地人이 일체됨(天人合一)을 뜻한다. 『書經』, 『呂氏春秋』, 『莊子』, 『列子』 등의 고문헌에서 ‘大同’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고문헌에 나타난 대동의 의미는 天意와의 合致, 의견의 일치, 자연의 氣와의 동화, 천인합일의 뜻을 담고 있다.¹⁵⁾

전통의 대동관념 중 강유위의 대동사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대동이다. 예운편에서 대동이라는 말은 공자가 魯국의 蜡祭에 參禮했을 때 子游의 물음에 답하는 데서 언급되는데, 그 내용은 天下爲公을 핵심으로 한다.

옛날 큰 도가 행하여진 일과 三代의 英賢한 인물들이 때를 만나 도를 행한 일을 내가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삼대의 英賢들이 한 일에 대하여는 기록이 있다. 천하의 큰 도가 행하여지자 天下를 公共의 것으로 생각하였고, 어질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서로 전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誠信함을 講習하고 和睦함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만을 섬기는 일이 없었으며, 또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늙은이로 하여금 그 생을 평안히 마칠 수 있게 하고, 장년은 그 쓰일 곳이 있게 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의지하며 성장할 곳이 있게 하고, 과부, 고아, 질병에

14) 진정염·임기담 저, 『중국대동사상연구』(이성규 역, 1990), pp. 39-42.

15) 최성철, 앞의 책, p. 211. 『書經』의 洪範篇에서는 洪範九疇 중 「七稽疑」의 설명에서 군주와 朝廷官吏와 국민의 의견이 일치됨을 가리켜서 大同이라 하고 있다. 洪範의 大同은 『墨子』 尙同篇의 同의 觀念과 사상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墨子の 尙同사상에서는 만민의 뜻과 왕의 뜻,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呂氏春秋』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大同이라 하였다. 『장자』 在宥篇에 나오는 大同泮溟은 천치만물 생성 이전의 원초의 氣라고 생각되는 泮溟에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린 자로 하여금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남자는 사농공상의 직분이 있게 하여, 여자는 돌아갈 남편의 집이 있었다. 재화가 헛되게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사사로이 감추어 두지 않았으며, 힘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을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간사한 피를 부리는 자가 없고 절도와 난적이 없었다. 따라서 대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세상을 천하가 公道를 같이 하는 대동의 세계라고 말한다.¹⁶⁾

대동의 세계는 天下爲公의 원리로 이루어지며, 천하위공이란 정치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함을 밝힌 것이다. 즉, 천하위공의 정신을 토대로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공평하고 어진 정치를 행하여서 모든 사람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도록 하여 충서의 도를 확산하고, 화목토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세계가 바로 대동세계인 것이다. 천하위공의 공은 정의, 公道를 뜻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人性의 본체는 본래가 지극히 공정하고 커서 공평한 것이지만 정실에 얽매이고 感官의 노예가 되는 까닭에 사욕을 낳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私慾과 奸智를 없애고 性的 本體를 회복시키면 마음이 공정해지고 의리의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 忠恕의 道인 인의 실현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공자의 관념 속에서 인류를 통합하는 근본요소가 된다. 忠恕를 仁을 행하는 과정으로 삼아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췌인류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욕구의 내재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강유위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仁의 발현은 전통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강유위는 『예운주』에서 “공자의 도는 三世, 三統, 五德의 運이 있다. 仁智義信禮는 각각 때에 응하여 運을 행한다. 仁運이란 것은 大同의 운이며, 禮運은 小康의 운이다.”¹⁷⁾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초보적인 삼세 진화설이다. 그는 이 오운, 삼세, 삼통의 진화 중 禮運은 據亂의 다스림

16) 『예기』 예운편.

17) 강유위, 『禮運注』(臺灣: 宏業書局有限公司, 1976), p. 7.

과 小康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仁運은 太平의 다스림과 大同의 도를 행하는 것이며 중국 역사에서 공자가 말하는 우, 탕, 문, 무, 주공의 治하는 모두 소강의 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¹⁸⁾

대동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소강에 관하여 『예기』 예운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금의 세상은 천하를 公有로 하는 大道는 이미 없어지고 천하를 私家로 생각하여 각각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며, 자기 자기의 자식만을 사랑한다. 천자와 제후는 세습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성곽과 溝池를 견고하게 스스로 지킨다.

禮義를 紀綱으로 내세워 그것으로써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바로잡으며 부자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형제를 화목하게 하여 부부 사이를 화합하게 한다. 제도를 설정하여 田理를 세우고 용맹함과 지혜있음을 어질다고 하고 功은 자기를 위한 일에 이용한다. 그런 까닭에 평화는 유지할 수 없으며 戰亂이 계속되는 것이다. 禹, 湯, 文, 武, 成王, 周公의 六君子는 그 중에서도 출중하여 백성들에게 공도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 라도 이와 같은 예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사회를 소강이라 한다.¹⁹⁾

강유위에 의하면 小康 사회란 천하위공 대신 利己爲私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대동과 소강의 차이는 '공유와 사유, 利他와 利己, 평화와 전쟁' 등이다. 대동의 세계가 無私公平의 사상과 평등·박애사상을 근간으로 한 無國家, 無家族의 사회이며 공양과 공홀 등의 제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상사회라면, 소강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강유위의 대동-소강설은 강유위의 대동사상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전통사상을 근간으로 도가사상, 묵가사상, 불가사상 및 서구사상을 혼합하여 그 나름대로의 人類救濟의 이상을 말한다.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서구의 유토피아 사상과 비교될 수 있다. 이상 사회론으로서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서구적인 요소를 이미 많이 담고

18) 강유위, 『예운주』, p. 18.

19) 『예기』 예운편.

있다. 유토피아 사상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 상황으로부터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발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불만은 개혁의 충동을 유발하기 쉬우나, 유토피아의 사상이 구상되려면 먼 장래에 대한 탁월한 안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²⁰⁾ 강유위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개혁을 통하여 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쥘인류의 먼 미래의 이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되었다. 그가 대동사회를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부터지만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은 1898년 백일유신이 실패한 후 망명기간 중에서였다. 1884년 대동관념에 관한 강의 회상을 『康南海自編年譜』에서 인용해본다.

그 道는 元을 本體로 삼고 陰陽을 그 작용으로 삼는다. 理에는 모두 음양이 있으니 氣에 차가움과 뜨거움이 있고 힘에 반발과 흡입이, 질에 응고와 유동이, 形에 모난 것과 둥근 것이, 빛에 흰 것과 검은 것이, 소리에는 맑음과 흐림이, 신체에는 암컷과 수컷이 정신에는 魂과 魄이 있어, 이 여덟 가지로 物理를 통어한다. 諸天界, 諸星界, 地界, 身界, 魂界, 血輪界로써 세계를 통어한다. 勇, 禮, 義, 智, 仁 五運으로 世宙를 통어하고 3通으로 諸聖을 논하며 3世로써 장래를 추구하고 힘써 仁을 위주로 한다. 따라서 하늘을 받들고 땅을 합치니 나라와 種族과 教를 합쳐 지구를 통일한다. 또 一統을 추구한 다음, 인류, 언어, 문자, 음식, 의복, 건물의 제도변화, 남녀 평등의 법, 인민의 용, 동, 공의 법으로써 힘써 諸生을 극락세계에 이르게 한다.²¹⁾

우주적 道의 본체(元)와 理로부터 時空, 만물, 心身에 이르는 통일적 조화의 원리, 지구상의 국가, 종족, 문화에 걸친 통일과 至福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天人合一의 대동사상에서 전통적인 관념을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전면적인 문화 변동, 남녀평등, 지구적인 규모의 통합, 극락세계 구상 등 대동사상의 새로운 특색이 확인된다.

20) Hsiao, Kung-chuan, *A Modern China and a New World: Kang Yu-wei, Reformer and Utopian* (1858-1927), Seattle and London: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p. 436.

21) 강유위, 『자편연보』, p. 166-167.

강유위의 대동사상에는 평등과 자주라는 서구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인륜관계에 있어서도 서구 시민윤리가 도입되어 공동체의 성격 형성에도 변화가 있다. 지구 公議院을 창립해 공사를 모아 국가간 통합의 공리를 담론하며 公兵을 양성해 회합에 빠진 나라를 제거함으로써 지구를 합치는 계책으로 삼는다는 발상도 했다.²²⁾

그러나 『자편연보』의 위의 구상에 三通이나 三世 같은 공양학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은 『자편연보』 자체가 회상록으로서 범하기 쉬운 시간 혼동, 혹은 착오라고 볼 수 있다. 1890년 이전에는 그가 아직 고문경파로서 금문경의 공양학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주의적 실현을 피하는 대동개념은 금문경학에 입문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동의 원리는 “경학과 제자학의 심오한 말을 합치고, 유교와 불교의 은밀한 뜻을 찾으며, 중국과 서양의 새로운 理를 참조하고, 하늘과 인간의 오묘한 변화를 연구하고, 여러 교를 수합해”²³⁾ 대지와 고금과 미래를 탐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대동개념이 여러 사상의 혼합과 절충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유위의 대동 관념은 유교의 민본적 ‘인’, ‘천하위공’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구 자연과학의 도구와 중국의 장자, 불교적 인식론의 영향을 받았음도 분명하다. 불교는 강이 양명학으로부터 입문해 선종과 화엄종을 통해 보살행의 구세의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²⁴⁾ 강유위는 “수천 내지 만 배로 확대되는 현미경으로 인해 이가 수레바퀴같이, 개미가 코끼리같이 보이고”, “전기광선이 1초에 수십 리를 가는” 사실에서 큰 것과 작은 것, 오래 걸리는 것과 빠른 것이 “다같이 동일하다(諸同)”는 원리를 발견했다. 또한 “至大 밖에 더 큰 것이 있고 至小 안에 더 작은 것이 있다”거나 “오고 감이 없고 없음이 없고 氣, 精, 身에 생사가 없고 정밀함과 거칠음,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다”는 사유의 경지는

22) 강유위, 『자편연보』, p. 170. 創地球公議院. 合公土以談合國之公理. 養公兵以去不會之國. 以爲合地球之計.

23) 강유위, 『자편연보』, p. 166.

24) 조병환, 「강유위의 초기 유토피아 관념과 중서문화 인식 - 근대 개혁 이데올로기의 탐색」, 『東洋史學研究』 65집, 동양사학회, 1999. p. 108.

장자의 제물론이나 선불교의 상대주의적 절대존재의 인식과 유사하다. 한편 서구 사회주의 사조 영향에 대해 강유위가 구독한 『만국공보』의 기사내용이 끼친 영향이 거론되기도 한다.²⁵⁾ 특히 『만국공보』에 게재되고 또 광학회에서 간행된, 미국인 공상 사회주의자 벨러미(1850-1898)작의 환상소설 “*Looking Backward*”의 번역본은 강유위에게 상당한 계발 작용을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동사상에는 중서문화의 天人合一적 융합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강유위가 서구 근대사상에서 수용한 인간 개체간의 자주개념이나 평등개념은 대동사상에 이르러 그 주체가 집단의 성격으로 묶이면서 국가, 인종간의 자주와 평등이 더 중요해진다. 그 원인을 19세기 말 사회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민족위기를 맞은 중국은 서방 진리의 수용으로 모든 것이 붕괴, 형성, 변화하는 공간의 대변동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²⁶⁾ 그리고 중국과 서구의 우열을 따지는 제국주의 논리를 상대주의 논리로 거부하는 동시에 중국과 서구의 고유한 절대가치를 각기 인정해 상호평등의 보편질서를 미래 세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민족주의 운동이나 개혁사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동적 관념은 관념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중서문명의 융합으로 형성된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仁 사상을 토대로 중국의 자주가 확보되는 평화적인 통일세계를 희망하고, 중국과 서구 모두 대동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인 소강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여기면서 중서의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를 희망한 것이다. 이것은 공리공법의 논리에서 중국이 뒤쳐지는 면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소강에서 대동으로 이르는 진보관념에서 서구와 중국을 모두 소강의 세계로 인식하였다. 즉, 서구도 아직 대동이라는 이상사회로 이르지 못했음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서구사상에 맹목적이지 않으며, 仁 사상을

25) 藏世俊, 『康有爲大同事想研究』(광주: 인민출판사, 1997). 이를테면 강유위가 구독했던 『西國近事彙編』에 1870년대 이래 영국 노동운동과 구미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활동이 소개되었고, 『萬國公報』에는 1891-1892년에 에드워드 벨러미(E. Bellamy)의 공상 사회주의적 저작 *Looking Backward*가 節譯되어 『百年一覽』이란 이름으로 연재되었다고 한다.

26) 이택후, 「강유위 사상연구」, 『중국근대사상사론』(중화, 1987재판), p. 149.

바탕으로 한 박애주의적 입장에서 평화적 통일세계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사상의 일관성을 이루는 것이다.

IV. 『大同書』에 나타나는 강유위의 이상사회

IV-1. 『대동서』의 목적

『대동서』의 첫 장이라고 할 수 있는 甲部(入世界觀衆苦)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괴로움을 나열하고 있으며,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정치,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통의 원인으로 파악된 해로움들을 해결해야만 인간 개개인들이 공동체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서언에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불인지심이 있다(人有不仁之心)고 밝힘으로써 쏨인류를 대동세로 이끌어가는 원동력, 즉 대동사상의 기초에 仁 사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유토피아 사상가들은 대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강유위 역시 당시의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 제도뿐만 아니라 서구의 제도 역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였다. 그는 『대동서』에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제반 요인을 고찰하고 그것을 파헤쳐 그 원인이 되는 제도상의 잘못들을 밝히려고 하였다.

강유위에게 현실세계는 고통, 고뇌의 세계이다. 그는 인간세계의 괴로움은 끝이 없고 헤아리기가 어려우며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고통을 “태어남으로 인한 괴로움(人生之苦)”, “인생의 괴로움”, “다스림을 받는 괴로움”, “인정의 괴로움”, “존중받는 사람들의 괴로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통의 근원이 국가, 가족 계급과 같은 九界에 있다고 보고 이 九界를

제거하여야만 모든 인류가 진정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동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사회제도를 비판함에 있어 급격한 폭력혁명보다는 질서정연한 점진적 진화를 통한 이상사회를 구상하였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유위에게 있어서 이상세계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이 충족되는 사회이다.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욕이 부여된다. 그러나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禮를 세워 사회를 유지하고, 범위 안에서 욕망 충족은 허용하나 그 범위를 넘는 것은 금지한다. 따라서 성인의 제도는 다만 모든 사람을 위해 正을 유지해 주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제도, 정치제도는 인간의 욕망충족과 과욕을 제한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연적 산물이며, 또한 필요한 것으로 그는 보았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 정치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그 제도가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의 결함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인 인간의 욕망충족 보다는 고통을 주는 제도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 강유위는 당시 중국에서 황제는 숭앙받고 국민들은 천대받으며, 남자만 중시되고 여자는 경시되며, 귀족은 존경받고 천민은 억압받는 관습은 인간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의 경우 계급제도로 인해 하층계급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회제도가 관습에서 오는 고통을 없애려면 이와 같은 낡은 폐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그는 현존하는 모든 제도는 본래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제도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고 고통을 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대동사회는 현실의 철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데 그는 모든 구습의 부정은 물론 가족제도, 사유재산제도, 국가제도 등 현존하는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이를 초월할 수 있는 새로

27) 강유위, 『대동서』, pp. 167-168.

운 사회를 구상하였다. 그 관념의 대담성에 비추어 볼 때, 강유위는 세계의 어느 위대한 유토피아 이론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국 최초의 유토피아 사상가로 평가될 수 있다.²⁸⁾

강유위의 대동사회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단일 민주정부 아래의 세계국가로서 사회적으로는 혈족, 종족 및 계층의 구별이 없이 모든 인류를 포용하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기술적 발전의 혜택이 극대화되는 경제체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인류의 통일과 평등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IV-2. 세계정부론

강유위는 평화를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가 말하는 평화란 적극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됨은 물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애에 입각한 조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에게 평화는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요소의 하나이며, 인간 최대의 동정과 이해, 和睦을 내포한다. 그는 쏘인류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이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교화를 통해 선해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또 인간은 이성을 소유하였으므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쏘인류는 공동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진 강유위가 전쟁을 극도로 증오하고 최고의 악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에 의하면 전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이며, 수천 년 동안의 전쟁의 참화와 백성의 고통을 모두 합하여 따진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³⁰⁾

한편 강유위는 전쟁을 정치조직의 성격상 본래부터 그 조직에 내재

28) Hsiao Kung-chuan, 앞의 책, p. 437.

29) 최성철, 앞의 책, p. 269.

30) 강유위, 『대동서』 乙部, p. 82.

되어있는 한 요소로 간주했다. 그는 한 국가나 제국이 군사력에 의해 다른 소규모 집단을 합병하려는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지구상에서만 아니라 상상하건대 성단과 성운을 비롯한 우주의 각처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인류가 이룩해 온 문명은 전쟁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보다 격렬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³¹⁾

이와 같이 그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모두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國界를 없애는 것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강유위는 이런 인식을 근거로 국가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국가란 亂世에 있어서는 부득이 자위수단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升平의 세계에 있어서는 전쟁과 살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옛날부터 천하국가라는 말을 항상 써왔지만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제 백성의 참화를 구제하고 태평세의 행복을 누리며 대동의 공익을 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경을 철폐하여 국가의 구별을 없애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야말로 仁人, 군자가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노력해야 할 일이다. 국계를 철폐하는 일이 아니고는 백성을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국가는 인민이 구성하는 최고의 단체이므로 어떠한 법률로도 제지할 수 없으며, 국가마다 각기 제 국익만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어떤 보편적인 법으로 제약할 수 없다고 하여 각국의 경쟁과 투쟁을 규제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가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은 국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자연 상태에서와 같은 투쟁은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강유위는 대동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가 분리되었다가 점차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은 황제와 堯舜시대에는 만여 개의 국가로 분립되었다. 湯왕에 이르러 3000국이 되었고, 무왕 때에

31) 강유위, 『대동서』 乙部, pp. 81-83.

는 1800여국, 춘추시대에는 200여국, 전국시대에는 7국이 되었고, 진한 시대에 이르러 통일이 되었는데 그 동안 이천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서양에서도 메디아가 1000여국을 멸하고 페르시아 통일을 이루었고, 인도 역시 불타 이전에는 1000여국으로 분립되어 있었는데 아소카 왕이 통일하였고, 하르샤 왕과 이슬람교에 의해서 재통일이 되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32)

그는 국가의 경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다고 한다. 그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한다. 쯤인류를 전쟁의 참화로 부터 구제하고 태평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동의 세계를 달성하고자 하면 무엇보다 먼저 국경을 철폐하여 국가의 구별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33)

강유위는 인류가 대동세계를 이루는데 거쳐야 할 과정으로 세 가지 단계를 구상한다. 먼저 군축과 무장해제를 위한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국가를 연합하여 연방을 결성하고 마지막으로 공의정부를 구성하여 유지해가는 것이다.

우선 據亂世에는 각국이 평등하게 연맹하여 公議會를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 체제는 각 연방의 정부가 內治를 하면서 大政은 大政府 아래 통일하는 升平世이다. 太平世는 국가의 호칭과 영역을 폐지하고 각기 자주적 州郡을 세워 公政府 아래 통일하는 체제로서 미국, 스위스의 정부형태와 같은 것이다. 태평세에 이르러서는 개별적인 국가는 없어지고 제왕도 없으며, 사람마다 친화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 천하가 공공의 것이 되니, 이것을 大同이라 일컫게 된다. 34)

세계가 보편적 국가로 통합되면 모든 사람은 세계시민이 된다. 중앙 공의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가 구성된다. 지방자치정부는 기능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각 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정부의 우두머리로 선출되고 모든 거주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

32) 강유위, 『대동서』 乙部, pp. 87-89.

33) 강유위, 『대동서』 乙部, p. 105.

34) 강유위, 『대동서』 乙部, pp. 101-107

한 정부체계에서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최소한으로 감소되며, 평등의 원리는 완전히 실현된다. 민주적인 세계정부의 확립은 이상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강유위의 세계정부론은 그 출발이 서구문명의 충격으로 화이론적인 세계관의 해체로 확장된 세계인식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중국 고전에 나타난 天下爲公이나 天下一家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강유위는 國界를 없애 전쟁을 종식시켜야 인류에 행복이 오고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V-3. 사회평등론

강유위에게 평등은 행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괴로움에 빠진다고 하였다. 계급차별,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의 차별은 제약이며 고통이다. 따라서 쏠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본적인 조건은 인위적인 제도나 관습에 의한 차별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론의 이론적인 근거는 앞에서 밝혔듯이 천부인권의 사상에 근거한 인간의 자주권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원으로부터 비롯한 기를 지닌 누구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동서』에서는 丙部, 丁部, 戊部에서 계급에 따른 차별(去級界平民族), 인종에 따른 차별(去種界同人類), 남녀 간의 차별(去形界保獨立)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계급차별은 천민, 노예, 부녀의 셋으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은 보편적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인류발전의 저해 요소이기에 모든 차별의 철폐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계급적 차별이 인류발달의 저해요인임을 인도와 고대 도시국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급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인류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음을 프랑스 대혁명과 일본의 명치유신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³⁵⁾ 강유위는 서구제국이 부강한 원인을 평등원칙에서 찾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평등을 원칙으로 하여 부강해졌으며 페르시아, 러시아는 약해졌다고 한다.³⁶⁾

35) 강유위, 『대동서』 丙部, pp. 167-169.

세습계급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강유위가 가장 강조한 것은 노예 제도의 폐지였다. 그는 공자가 노예제 폐지를 처음 창안하였고, 한 대의 광무제가 노예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중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해방을 단행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중국의 노예제도는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예제도는 천의 공리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⁷⁾ 강유위에 의하면 평등은 지혜롭고 즐거우며 융성하고 부강하나, 불평등은 어리석고 고통스러우며, 쇠미하고 허약함을 나타내고 있기에 노예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³⁸⁾

강유위는 오늘날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인종이 있어 얼굴 빛깔은 물론 정신작용 역시 크게 다르기 때문에 國界만 없앤다고 각기 다른 인종이 서로 친애하고 화합하여 평등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³⁹⁾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혼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위의 인류혼합론은 극단적이기까지 하지만 완전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조건도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형적인 조건이 같아지려면 인종을 혼합하여 피부색,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의 우열이나 종족의 차별은 사라지며 모두 평등하고 친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하나로 결합되면 大同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종족의 울타리를 넘어야 진정한 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인종을 혼합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 사이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 살게 함으로써 식생활을 개량하여 세월이 지나야만 반드시 체질이 변하여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⁴¹⁾

이러한 인종혼합론은 삼세진화론과 연결될 수 있다. 據亂世에는 황·

36) 강유위, 『대동서』 丙部, p. 169.

37) 강유위, 『대동서』 丙部, pp. 170-171.

38) 강유위, 『대동서』 丙部, p. 171.

39) 강유위, 『대동서』 丁部, pp. 177-178.

40) 강유위, 『대동서』 丁部, p. 177.

41) 강유위, 『대동서』 丁部, p. 180, p. 184.

백·갈·흑인종 등 인종의 구별이 있고, 귀천을 차별하며 인종 간에 통혼을 하지 않으며, 또한 인종에 따라 智愚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升平世에는 갈·흑인종은 점차 황인종으로 변하여 황·백인종이 주류를 이루게 되며 귀천의 차이는 있으나 각 인종 간의 체격 차이가 차츰 적어지며 서로 통혼하게 된다. 또한 승평세를 지나 태평세에 이르면 인종의 교합에 의하여 모든 인종의 체격이 같아지며 평등하게 되고 서로 통혼하므로 인종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고 본다.⁴²⁾ 서구의 유토피아 사상가들의 우생학적인 측면이 강유위에게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인종과 백인종은 우월한 인종으로 인식하면서 흑인종은 너절 한 못된 종자라는 인식을 가진 것 또한 서구 사상의 영향, 특히 자연과학 지식의 수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³⁾

강유위는 한두 사람 정도의 소수가 차별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지만 그 수가 천만이 넘어가면 도와준 사람이 전무하다면서 여자가 받는 차별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사물은 기우와 음양의 원리로 이루어져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자연의 이치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남녀는 구별 없이 性情과 氣質에 있어 같고 德義, 嗜好, 신체 형태도 같다고 한다. 여자라고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이 강유위의 주장이다. 강유위는 여성이 받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여성은 벼슬을 할 수 없었고(不得仕宦), 과거를 볼 수 없었으며(不得科擧), 의원이 될 수 없었다(不得充議員). 또한 공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不得爲公民) 따라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不得預公事), 자립하지 못하고(不得自立)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다(不得自由).⁴⁵⁾

강유위에 따르면 남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습에 얽매여 남존여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니

42) 강유위, 『대동서』 丁部, pp. 180-181.

43) 강유위, 『대동서』 丁部, p. 181.

44) 강유위, 『대동서』 戊部, p. 193.

45) 강유위, 『대동서』 戊部, pp. 194-206.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여 여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家界의 폐단을 철폐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통의 원천인 남녀 불평등이 해결되어야 한다.⁴⁶⁾

강유위는 남녀의 불공평을三世에 따라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죄수나 노비같이 대우하여 금압하던 것을 해방하는 것은 거란세의 일이며, 자유로운 교제와 안회참석,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승평세의 일이고, 선거와 의원의 자격, 공민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태평세의 일이라고 하여 점진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차별의 철폐가 공자의 가르침이며, 여러 성인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니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IV-4. 가족제 폐지론

강유위는 『실리공법전서』에서 인간의 자유, 평등을 공리로 제시하고 이를 표준으로 공법, 비례법을 비교한다. 이같은 방법을 유교의 五輪에 해당하는 人倫에 적용해보고 있다. 人倫과 관련된 그의 공리개념은 대동세계의 기본원리의 적용범위와 그 기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강유위는 “五輪은 사실 二輪에 지나지 않는데, 부자·형제는 부부관계에서 나오며 군신도 봉우에 가깝다.”고 했다.⁴⁸⁾ 인륜관계의 근본은 강유위에 게 부부로 인식되었다.⁴⁹⁾ 그리고 백년 후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을 터인데, 군주가 전제를 못하고 신하가 낮지 않으며, 남녀의 비중이 같고 양민과 천민이 똑같아지니 불교의 평등과 같은 학문이라고 했다.⁵⁰⁾ 이러한 평등 인식은 그의 공리, 공법이 반영된 대동사상 구상과 연결된다.

『대동서』 己部 去家界爲天民에서 강유위는 가족제에 대해 설명한

46) 강유위, 『대동서』 庚部, pp. 380-381.

47) 강유위, 『대동서』 戊部, p. 245.

48) 강유위, 「만목초당구설」, 『전집』 제2집, p. 275. 五輪實兩輪, 父子, 兄弟從夫婦出, 君臣亦近朋友.

49) 강유위, 앞의 책, p. 340. 君子之道, 造端平夫婦 三句, 是孔子絕大道理.

50) 강유위, 「康子內外篇」 人我篇, 『全集』 제1집, p. 190. 吾謂百年之後必變三者 君不專, 臣不卑, 男女經重同, 良賤齊. 嗚呼! 是佛氏平等之學矣!

다. 태고 때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도리는 부모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한다. 이것은 천성이며, 사람의 근본 도리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가 생겨난 초기에는 부부라는 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가 길렀다. 가족이 형성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라는 관계가 설정되고 난 이후부터라고 했다. 남녀관계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관계설정에서 분쟁이 생겨 성인이 부부관계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家制, 族制가 생겨났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족제는 인간의 보금자리로서 친밀감과 결속력이 강하다. 이러한 가족제가 내재하는 문제점은 다른 가족이나 종족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거나 他姓에 대한 배타성으로 표출되고 확대되어 상호대립투쟁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⁵¹⁾

강유위가 가족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제도가 사회의 공동선이나 쏨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 집단은 이기주의의 온상으로 온갖 사회악의 근원이 된다. 가족이 있으면 개인은 이기적이 되어 人性과 人身을 해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에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 욕심을 가지게 되어, 그것을 위해 속임수와 책략과 사기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제도가 진정한 평등을 해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부귀한 집안의 자손은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과 교육에 힘입어 건강하고 학식을 겸비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빈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손은 신체가 허약하고 열등의식을 느끼며, 올바른 교육도 받지 못해 학식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는 유복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힘써 일을 하여도 빈궁한 형편을 면할 수 없기에 성격도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된다.⁵²⁾

51) 강유위, 『대동서』, p. 260, p. 272, p. 282, pp. 286-289.

52) 강유위, 『대동서』 己部, p. 272.

인간의 성품이 모두 선하고, 인격이 갖추어져 있고, 풍속과 교화가 모두 훌륭한 세상이 바로 태평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가족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가족제도란 거란세와 승평세에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태평세에서는 단지 방해물일 뿐이다.

그러나 강유위는 브라만교나 불교의 출가는 부정한다. 출가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증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만약 인구가 줄어든다면 인간의 지혜도 야만시대로 되돌아간다고 본다. 출가는 남녀 교합을 금지시키는 일이라서 인류의 후손이 끊어지며 인류문명도 쇠락한다는 것이다.

가족제를 폐지하고 부모,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강유위는 공공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돌보는 公養, 公教, 公恤의 방법을 제시한다.⁵³⁾ 인생이란 낳아 기르고, 가르치고, 늙어 병들고, 고생하다 죽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태평세에서는 그런 일들을 모두 공공기관에서 전담해 관장한다. 출생부터 장례까지 모두 공공으로 주관하게 된다.⁵⁴⁾

가족폐지론에는 미래사회에 대한 예견이나 극단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있다. 부모의 성의 문제에서 승평세에서는 부모의 두 성을 다 따서 復姓으로 하고, 대동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므로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울고 어머니가 통곡하는 때는 거란세이고, 부모를 모두 따르는 때는 승평세이며 부모의 성을 버리는 때는 태평세이다. 姓이 있으면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사사로움이 있어 천하에 공리가 행

53) 강유위, 『대동서』 己部, p. 290. 公養의 방법으로 人本院(임신한 사람이 들어가 태교를 시행하는 곳, 남편의 부양이 필요 없다.), 公立育嬰院(태어난 아기가 옮겨지는 곳, 산모가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 公立懷幼院(어린이아가 세 살이 되면 옮겨지는 곳, 부모가 돌볼 필요가 없다.)이 있고, 公教의 방법으로 公立蒙學院(여섯 살이 되면 들어가 교육받는 곳), 公立小學院(10-14세의 아동교육기관), 公立中學院(15-17세의 교육기관), 公立大學院(18-20세 교육기관), 公恤의 방법으로 公立醫疾院(질병이 있는 사람이 입원, 치료하는 곳), 公立養老院(60세 이상으로 스스로 생활해나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公立恤貧院(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公立養病院(불치병환자 가는 곳), 公立化人院(죽은 사람 안치하는 곳)이 있다.

54) 강유위, 『대동서』 己部, p. 291.

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공리가 행해지려면 반드시 姓이 없어야한다고 주장한다.⁵⁵⁾

공홀에서 독특한 것은 대동세는 오로지 평등의 뜻을 나타내서 공양과 공홀을 위한 여러 院에 모두 차별이 없지만, 양로원과 고종원에는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며, 지혜로운 사람을 숭배하고, 공을 이룬 사람을 대우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서 젊은 사람들의 분발과 부끄러움과 경계해야 할 바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⁵⁶⁾ 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은 형벌의 수단을 위해서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강유위의 가족제도 폐지론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동사상의 기초인 仁을 우주만물의 근원에게까지 확대해 천하를 공공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섬기는 일이 없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박애를 강조한 것이다.

IV-5. 공유제론

경제와 관련된 강유위의 公有制 주장은 대동서 전체에서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대동세로 나아가기 위해 가족제 폐지와 함께 사유재산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강유위에게서 사유재산제와 가족제는 애착심과 이기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강유위는 근대화의 진보와 상공업의 진흥을 바랍직하게 여기지만 대동세에서는 사유재산제가 폐지되어야한다고 본다. 사유재산제의 대안으로 公農, 公工, 公商을 제안한다.

재산, 경제영역에서도 대동으로 가기 위한 강유위의 三世 구별이 나타난다. 인류의 생존이 담긴 농, 공, 상은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각 사회

55) 강유위, 『대동서』 己部, p. 314.

56) 강유위, 『대동서』 己部, pp. 341-343.

단계마다 그 발전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고 보았다. 강유위는 거란세와 승평세는 사회생산력이 보여주는 물질 문명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공업화된 대량생산제도를 돌아보고, 이것은 “농업으로 나라의 기본 산업을 삼은 (以農入國)”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新世界)”라고 인식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학문을 더욱더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 공업, 상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학교도 생기게 되어 농경에는 모두 기계와 화학비료를 쓰게 되었고, 일하는 기술도 정교해졌으며, 제조기술도 발전하였다. 하늘에는 기구가 뜨고 땅에는 철도가 놓여서 왕래가 편해졌고 전선이 없이도 전파가 바다를 건너니 中古代와 비교하면 마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하다. 상업적 운송수단의 발달로 자동차, 선박들이 다투어 왕래하면서 물품을 교역하여 五洲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 모두는 수천 년간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다. 분명히 나날이 발전해서 세상이 옛날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승평세의 물질문명이 사람과 사람사이의 빈부대립을 다 제거할 수 없으며, 사회윤리방면의 폐해를 제거할 수는 없다. 새로운 사업이 비록 훌륭하다고는 하나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백성의 생활을 보면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고통과 공덕의 결핍은 대부분 구제받지 못하였다.⁵⁷⁾

승평세에 있어서는 均의 문제가 으뜸이었으나, 태평세에 있어서는 公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 均平은 먼저 농사짓는 땅으로부터 시작한다. 강유위는 농업, 공업, 상업의 모든 분야에서 공유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이는 재화를 균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제거하는데 있다. 승평세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은 均平주의로서 빈부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이다. 그는 태평, 대동의 시대에는 천하가 爲公이 되니 빈부의 차별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57) 강유위, 『대동서』 庚部, p. 353

IV-6. 대동세의 모습

모든 일의 시작은 가족제를 폐지하고 공유제를 실시하고, 국가의 경계를 없애는 일의 시작은 천부인권의 뜻을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다. 온세계의 사람이 대동의 태평한 경지를 이루려고 한다면 남녀는 평등하며 제각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이는 하늘이 인간에 준 권리라고 한다.⁵⁸⁾

강유위는 자신이 처한 중국의 시대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판하여 대동사상을 착안했다. 그런 점에서 대동사상은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부터 출발하여 남녀관계, 가족관계, 사회, 국가로 확장해나가는 그의 방법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나 중국에 그가 도달하기 원하는 세계는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는 태평세라고 할 수 있다. 『대동서』 마지막 장 癸部 「去苦界至極樂」에서 그려지는 이상사회의 모습은 강유위의 이런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방법으로 승평을 벗어나 대동세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없어 편안함과 즐거움에 달해 오래 살기만을 생각한다. 사람들은 장수에 관한 논의와 신선술을 크게 융성시켜 몸을 감추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연명할 수 있고, 허공을 날아다니며 즐겁게 노니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대동세에는 신선학과 불교가 융성할 것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하느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착한 일을 가르치며 죄를 뉘우침으로써 마지막 심판에서 죄가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대동세에서는 모두 스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죄가 없게 되어 기독교의 가르침은 없어진다고 한다. 회교는 국가, 부부의 윤리와 덕을 말하는 종교이어서 이 또한 대동세에서 사라진다. 대동세에 이르면 공자의 삼세설이 모두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선사상과 불교가 차례로 융성하게 되어 개인은 인간의 경지를 버리고 신선과 부처에 경지에 들어가 초월적 실재에서 노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⁵⁹⁾

58) 강유위, 『대동서』 庚部, p. 380.

V. 맺음말

결국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仁의 원리로 인간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등과 자주가 실현되는 이상사회론이다. 강유위의 이상사회는 미래의 사회이며, 언젠가는 도래할 미래의 사회이다. 강유위는 공양학의 삼세설과 예운의 소강-대동설을 결합시킨 공양삼세설로 미래 사회에 대한 설계를 한다. 인의 내재성 인정과 역사발전론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된 강유위의 대동사상에서 태평세는 당연히 이루어질 미래이며, 언젠가 도래할 미래이다. 그러나 대동 이전의 소강의 상태, 강유위가 속해있던 중국이 처한 단계로 인식했던 소강의 상태에서 사회는 점진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강유위는 소강의 발전을 이끄는 이념으로 유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선한다고 믿었다. 결국 강유위의 대동사상에서 태평세는 孔子之道가 이루어졌을 때에 성립될 수 있는 이상사회이다.

강유위의 대동사상에서 대동은 초현실주의적이거나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다. 강유위의 대동사상 구상의 시작부터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濟世救人하려던 경제론적인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었던 만큼, 강유위의 대동세계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이다. 모든 종교는 인간과 사회의 구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종교별 특성에 따라 혹은 그 사회의 당면 문제에 따라 각 종교의 구원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다. 강유위는 그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의 식에서부터 유교를 통한 구원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강유위를 단순히 변법운동을 전개한 정치적 인물로만 볼 수 없으며, 대동사상을 실패한 정치운동의 허망한 이상사회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59) 강유위, 『대동서』 癸部, pp. 452-453.

〈 참고 문헌 〉

- 강유위, 『康南海自編年譜』,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 『강자내외편』,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 『大同書』, 상해: 상해서점.
-----, 『만목초당구설』,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 『禮運注』, 대만: 핑업서국유한공사.

- 민두기, 「역사 속의 강유위 - 인간과 사상」, 『사회비평』, 1989.
이택후, 「서체중용에 대하여」, 김형종 역, 『중국 현대 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1992.
조병한, 「강유위의 초기 유토피아 관념과 중서문화 인식 - 근대 개혁 이데올로기의 탐색」, 『東洋史學研究』 65집, 동양사학회, 1999.
진정염·임기담 저, 『중국대동사상연구』, 이성규 역, 1990.
최성철, 『강유위의 정치사상』, 일지사, 1988.

Hsiao, Kung-chuan, *A Modern China and a New World: Kang Yu-wei, Reformer and Utopian, 1858-1927*, Seattle and London: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Abstract〉

The *Ta-T'ung* Theory of Kang Yu-wei
: Based on 『*Ta-T'ung Shih*』

Kim, Ji-yeon

The religious meaning of Kang Yu-wei's *Ta-t'ung* theory first appeared in the preface of the 『*Ta-t'ung shih*』. In the preface there is "at the war of the China and the France, I am so impressed and angry about the people's trouble so I wrote the 『*Ta-t'ung shih*』". The war strongly influenced the organization of the theory because it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pain. Kang Yu-wei regarded the world as pain, that is the endless suffering. The suffering world never ends and difficult to figure out. He classified the suffering into birth, life, rule, human emotion and class-status (人生之苦, 人道之苦, 人治之苦, 人情之苦, 人所尊尙之苦). He thought the cause of suffering as the boundary like a state, a family, a nation, etc, so he insisted to remove the nine boundary of suffering in order to bring the happiness to all the human nature. All the more, he shows strong emotion to save the people from pain and Kang Yu-wei's *Ta-t'ung* theory in a way contains the theory of the salvation. *Ta-t'ung* theory starts off with the realistic request but it develops into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salvation after the theory blends with Taoism, Mojia,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 ideal society described in Kang Yu-wei's thought is *T'ai-P'ing Shih* (太平世) in which human escape from anger,

equality and independence come true by the principle of Jen. Moreover, this ideal society heads for 'Ta-t'ung' which is the utopia established by the realization of the ideology. The system contains omnipresent universality which involves the whole mankind through the acceptance of the modern concept like equality and independence, at the same time following the traditional position, the confucian unified world(大一統). The pursuit of the whole mankind and omnipresent universality show that the completion of epistemological conversion which overcome the position to discriminate against the foreigners(華夷論) and distinctive humanity is made by inflow of modernity. The development of epistemological conversion is possible by the combination of Chinese traditional thoughts which are the theory of Zang-tzu, Mojia, Buddhism, acceptance of equality and philanthropy, western modern idea of public reason(公理) and public rule(公法). Therefore, Kang Yu-wei's idea of Ta-t'ung includes the traditional stream of the ki(氣) philosophy of the Ch'eng which allows the wisdom and the desire of the Chinese traditional ideas of Mojia and Buddhism and the western modern ideas: public reason(公理), public rule(公法), and historical progressive ideas.